

노벨의학상 수상 목표

분과학회 총괄 필요성에서 제기

의학회의 전신인 분과학회협의회가 발의된 것은 1966년 5월 새로 취임한 의협 집행부(회장 명주완)에서 당시 34개 분과학회를 통괄할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진병호 학술이사에게 협의회 구성을 의뢰함으로써 비롯되었다.

1966년 10월 6일 첫번째 평의원회를 개최하여 회장에 김성환, 부회장에 정일천, 간사에 정대협, 이수중, 남기용, 감사에 김기홍을 선출함으로써 발족되었다.

그리고 1967년 4월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학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학회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협의 공식 기구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1974년 정관 개정 때에는 시도지부협의회 및 군진지부협의회와 동격으로 구성하도록 정관 제9장에 협의회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그 후 1988년 4월 29일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분과학회협의회의 명칭을 의학회로 개칭하였다.

의학교육, 학술진흥사업에 주도적

의학회는 의사협회의 의학교육 및 학술진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의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의자격시험 업무의 지원 및 학회조성금 지원, 의학통계 조사사업, 기초의학 진흥 조성, 의학용어 제정사업, 종합학술대회 개최 지원, 졸업후 의학교육제도 개선 연구, 전공의 교육, 의과대학 교과목 학습목표 제정사업, 의사국가시험 과목 출제기준 작성사업 등을 시행하는 한편 의학회 고유사업으로 학회 운영 활성화 사업, 학회 분류체계 연구, 분취의학상 시상, 후지사와 연구장학금 지원,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 및 외국학자 초청여비 보조, 국제의학 심포지엄 개최, 암분야 연구사업(미국 NCI와 공동사업), 학술지 등급 평가사업, 의학 정보계도 사업, 영문잡지(JKMS) 발간, 의학교육자명록 발간 등의 활발한 학

술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그동안 관 주도로 시행된 의사국가시험 업무의 민간단체 이관을 적극 추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의 발족에 적극 기여하였다. 그러나 상기 사업 중 암분야 연구사업은 국립암센터와 한미암공동연구협력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2000년 12월 국립암센터에 업무를 이관하였다.

학회 116개에 달해

의학회는 66년 발족 당시 34개의 정회원 학회로 시작하여 2000년에는 54개의 학회로 구성되었다.

준회원 학회는 81년도에 3개로 시작하여 2000년에는 62개로 구성되었다.

의사윤리지침으로 논란 일으켜

의학회는 지난 5월에 열린 제30차 종합학술대회서 “환자나 보호자와 의사의 합의하에 임종환자에게 명백히 의미 없는 치료는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윤리지침 1보를 발표, 지난해 ‘의사윤리지침’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산 8억여원

의학회는 2001년 8억 6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1억 1천만원을 회비로, 의협으로부터 5억원, 병원협회, 서울시의사회, 의정회로부터 7천만원 정도를 보조받아 충당했다.

의학회는 이렇게 조성된 예산을 기초의학진흥조성비로 기초의학 협의회에 지원하고, 의학통계 조사사업, 국제의학 심포지엄, 영문잡지 발간, 전공의 지도 감독, 전공의 교육, 홈페이지 운영 등에 지출했다.

2002년 8억 천여만원의 예산을 정하고 학회당 20만원이던 회비를 50만원으로 인상했다.

3년 경과된 학회만이 입회 신청 가능

의학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학회는 회원 입회신청

서와 학술 활동 보고서와 최근 3년 동안 발행한 학회지, 학술대회 초록집 표지, 목차 COPY 각 1부, 최근 1년 동안 발행한 학회지, 학술대회 초록집 원본 책자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미가입된 신설학회는 학회가 창립한지 3년이 경과해야 회원 입회 신청이 가능하다.

의학회 임원 명단

- 회장 지제근 서울의대 병리학
- 부회장 고윤웅 연세의대 내과, 김인철 가톨릭의대 외과, 김전상 중앙의대 진단방사선과
- 감사 이정균 을지의대 내과, 선희식 가톨릭의대 내과

임원 업무 및 역할

각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관련 이사별 업무를 분담하여 관장한다.

- 제1 부회장 1) 기획조정, 2) 학술진흥, 3) 기초의학, 4) 의학교육, 5) 간행,
 제2 부회장 1) 의료정보, 2) 보건교육, 3) 보험, 4) 의료제도, 5) 종합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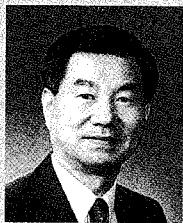
- 제3 부회장 1) 임상의학, 2) 수련교육, 3) 고시, 4) 재무, 5) 홍보, 6) 병원 신임 업무

학회주최로 종합학술대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3년에 한번씩 한국의학의 지난 성과를 조명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의 모든 요소 (병·의원, 대학, 학회, 연구소)를 통합시키고, 보건의료계가 단합하고 범 의료인의 학술대회를 활성화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7만여 의료인의 최대 의학 제전인 종합학술대회를 의학회 주최로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30차 대회는 지난 5월 30일 서울 코엑스전시장에서 현대의학 도입 100년을 재조명하면서 2010년 이내에 한국의 의학자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제시하는 학술대회로 기획하고, 노벨 의학상 수상자를 초청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며, 보건의료계의 단합을 도모하는 장으로써 대한의사협회 7만 회원(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포함), 의과대학생, 30개 학회 및 범 의료계가 참여하는 대회였다. <이진우 기자>

인 터 뷰



지 제 근
대한의학회 회장

대한의학회는 설립 초창기 1년제를 적용해 오던 임원 임기를 1974년부터 의협 임원 임기와 같이 3년으로 바꿔 현재 17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다.

지제근 의학회 회장은 16대 집행부인 지난 1999년 6월부터 前(전) 김광우 회장의 잔여임기를 맡았으며, 17대 회장에 선출돼 2003년 3월까지 2000년 4월부터 의학회를 이끌

어 오고 있다.

지 회장은 의학회를 "우리 나라 의학 학술 단체인 학회의 모임이다"라고 소개하고 "1966년 첫 모임을 가진후 의학 연구 발전, 의학교육 및 수련교육, 국제 의학 지식 교류, 학술지 발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회장은 "의학회는 2001년 현재 116개 학회를 회원 학회로 하는 협의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학회의 학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각 학회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활

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학회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학회 지침'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의학회 산하 한국 의료윤리심의회기구협회를 출범시키고 지속적으로 연명치료중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지 회장은 또한 의학이 심혈을 기울여 새로 출범하는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에 임명된 상태로 앞으로 의학회와 중복되는 측면을 조정해 의사들을 위한 의료정책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지 회장은 "의학정보 국제교류 강화 차원서 한국외과학지 영문판을 연 6회 매호 3,500부씩 발행하고 홈페이지를 개설, 초록 및 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올해 사업을 설명했다.

지 회장은 앞으로도 대한의학회는 우리 나라 의학 학문 발달과 교육 진흥, 그리고 국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의학회는 고윤웅 의학회 부회장을 2003년 4월부터 시작될 18대 차기회장을 지난 3월 정기평의회에서 선출했다.

<이진우 기자>

"국민위한 사업 진행할 터"